

시론

끼·멋·맛 - 광주와 전남의 발전을 향해<1>



박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다. 다른 데 혹은 다른 경제주체들이 이미 만든 문화적 자원, 정보와 자료 등을 모아서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연결해 주는 기업들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끼는 우리들이 삶의 고통과 희망 속에 진실하게 놓여 있다는 것과 통한다. 진도아리랑을 예로 들자, 잔치 날 혹은 농한기에 고장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각자의 사연을 엮어서 한 편의 웅장한 이야기를 노래로 창조해 왔다.

다.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자신을 낮췄던 고 박관현 열사는 김정 고무신으로 멋을 부렸다. 맛은 개인 삶과 공동체의 활력소이다. 우리 고장에서 농축산물과 해산물을 사용하고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산업과 제품의 디지털화(digitization 혹은 digitalization)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처리용량과 저장용량을 갖는 반도체,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Internet of Things(IoT) 기술, 통신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교통경로 등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알려주는 기술(cloud computing) 등을 바탕으로 한다.

끼는 우리들이 삶의 고통과 희망 속에 진실하게 놓여 있다는 것과 통한다. 진도아리랑을 예로 들자, 잔치 날 혹은 농한기에 고장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각자의 사연을 엮어서 한 편의 웅장한 이야기를 노래로 창조해 왔다. 그 노래들은 NETFLIX가 제공하는 세계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와 삶을 바탕으로 한 문화상품과도 유사하다.

맛은 개인 삶과 공동체의 활력소이다. 우리 고장에서 농축산물과 해산물을 사용하고 갖은 양념과 손 기술을 버무려 맛난 음식을 만들어 같이 나누는, 정은 삶의 굴곡과 고난을 헤쳐 가는 영양소이다. 우리 고장의 독창적인 맛은 세계인을 끌어모으는 관광자원으로 손색이 없다.

청년칼럼

이제는 광주·전남이 청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때



정재영 광주청년위원회회 대표

광주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저조한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에서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매년 25만원의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없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만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저조한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에서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청년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2021년에는 19세부터 39세의 광주 청년 인구가 40만3천 명이었으며, 광주의 청년 인구 비율이 28%였다.

매년 25만원의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없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만 1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주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저조한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에서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독자투고

마약위험국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박상준

과거 마약은 영화에서만 볼 법한 소재로 쓰였고 우리 일상에서 보고 접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SNS의 발전으로 마음만 먹으면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들을 SNS를 통한 비정상적인 루트로 구매하기가 쉬워졌다.

들이 서로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마약의 가격도 추가적으로 더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정정국의 지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최근 마약범죄와 약물 오남용의 증가로 마약위험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관리중이다. 국내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의 관리·감독과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중독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예방·치료에 관한 명확한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社説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5·18 통합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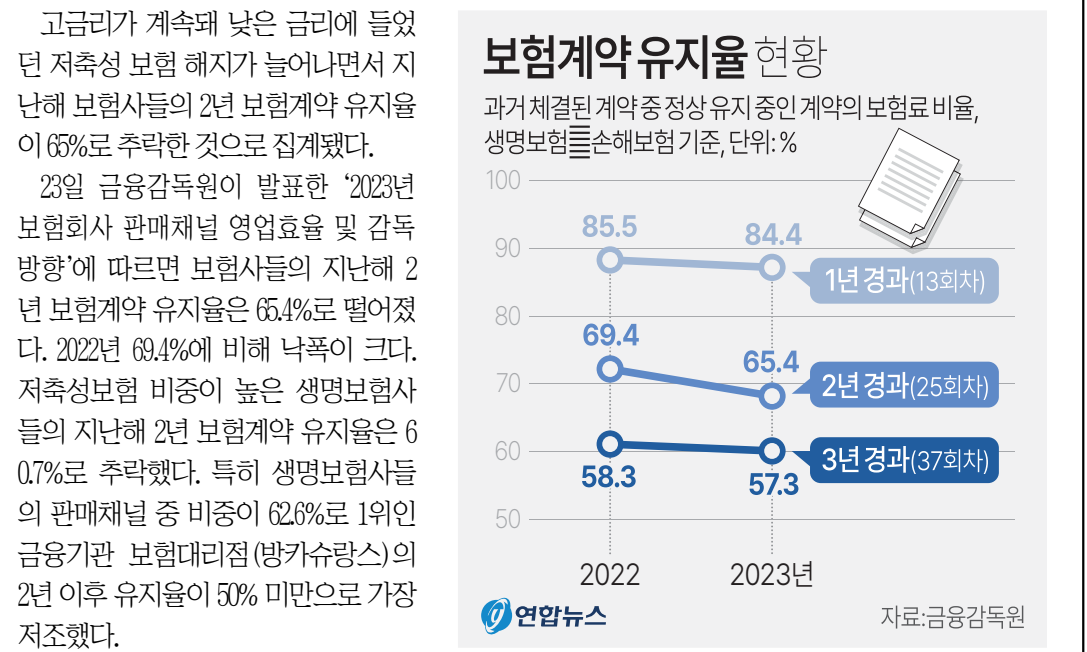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외곡·편향을 막고 오월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광주시 조례를 통해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등을 명시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배경도 작용했다.

진짜 엔데믹 맞았지만 개인 자율 방역 동참할때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진짜 엔데믹'이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까지 마스크 착용과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그래픽 뉴스

작년 보험사 2년 계약유지율 65%로 추락...저축성 보험해지 ↑



손해보험사들의 2년 보험계약 유지율은 71.6%에 머물렀다. 보험사들의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4.4%, 3년 57.3%, 4년 51.8%, 5년 41.5%로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